

“도청 앞으로 진군하던 민주화 정신 이어나갈 것”

5·18 당시 차량 시위 이행기

계엄군 폭력·만행에 투쟁 참여
무등경기장~금남로 택시 행진
“진실 밝혀질 때까지 연대해야”

“1980년 5월, 계엄군의 무자비한 폭력을 차마 지켜만 볼 수 없었다. 두려움이 앞섰지만 동료 택시 운전사들과 함께 ‘도청 탈환’을 외치며 차를 몰았다.”

1980년 5월 당시 6년 차 택시기사였던 이행기(70)씨는 44년이 지난 이날 운수노동자 차량 투쟁의 시작이었던 광주 북구 임동 무등경기장으로 다시 차를 몰았다.

29살에 5·18민주화운동을 겪은 이씨는 여느 때와 같이 택시에 승객을 태우고 광주 곳곳을 누볐다. 행선지로 이동하던 이씨의 눈앞에는 시위를 하던 학생들과 계엄군의 대치 상황이 보였다.

이씨는 “처음엔 계엄군이 시위를 하는 학생들을 연행하고 해산하는 것으로 보였는데, 자세히 보니 학생들뿐만 아니라 젊은이도 노인이도 막무가내로 잡아 폭력을 행사했다”며 “시민들이 아무 이유 없이 계엄군의 만행에 당하고 있는데 나서지 않을 수 없었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이씨를 비롯한 다른 택시기사들은 광주를 돌아다니며 계엄군의 폭력을 지켜봤다.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에 대항하기 위해 택시기사들은 5월20일 무등경기장 앞 도로에 모였다. 당시 계엄군의 도



1980년 5월 당시 동료 택시 운전사들과 함께 차량 투쟁에 참여한 이행기씨가 20일 열린 ‘민주기사의 날’ 행사에서 소회를 이야기하고 있다.

로 통제로 고속버스가 중흥동 고속버스터미널로 진입하지 못하자 무등경기장 앞은 임시 정류장으로 이용됐고, 승객을 태우기 위한 택시들이 줄을 지었다고 이씨는 설명했다.

이곳에 모인 택시기사들은 200여대의 택시를 몰고 ‘도청 탈환’과 ‘시민 보호’를 목적으로 무등경기장에서 출발해 도청으로 향했다. 택시기사들은 광주시민들을 구출하고 도청을 탈환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죽음을 불사하고 운전대를 잡은 것이

다.

이씨는 “지금 택시는 안전하게 나오지만 당시 택시는 작고 열악했다”며 “택시를 몰면서 창밖으로 보이는 광주의 심각한 상황에 위험하다는 걸 알고도 ‘도청 탈환’을 외치며 나섰다”고 말했다.

당시 계엄군이 통행을 막고자 전남대 사거리에 바리케이트를 설치했음에도 광주 길을 잘 알던 택시기사들은 우회해 도청으로 진군했다. 라이트를 켜고 경적을 울리며 금남로에 들어서자 시내버스와 일

부 차량, 시민들이 앞선 택시 행렬에 따라 투쟁했다.

죽음을 불사하고 나선 택시기사들의 차량 투쟁은 계엄군의 무자비한 만행에 위축됐던 광주 항쟁의 촉발제가 됐다.

이들의 항쟁 정신을 기리기 위해 1997년부터 매년 차량 시위 재현 행사가 열리고 있다. 이날도 5·18민주화운동 당시 택시 시위대를 이끌었던 차량 시위를 기리기 위한 ‘민주기사의 날’ 행사가 광주 옛 무등경기장과 금남로 일대에서 열렸

다. 행사에는 80년 5월 당시 투쟁에 참여했던 택시기사 11명과 전국 각지에서 모인 택시기사들 300여명이 함께했다.

옛 무등경기장 앞 도로에서 모인 이들은 당시 흔히 볼 수 있었던 ‘포니 택시’ 2대를 앞세운 택시와 일반 승용차 70여대가 참여했다. 본인의 택시 옆에 자리를 잡은 기사들은 주먹을 굳게 쥐어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했다. 기념식을 마친 이들은 유등사거리를 지나 옛 전남도청 앞 금남로까지 4.5km 구간을 행진했다.

차량 보닛에 ‘비정규직 철폐’, ‘오월정신 계승’, ‘택시제도 개혁’ 문구와 태극기를 부착한 채 44년 전 5월 광주 차량 시위를 재현했다.

행사를 주관한 민주택시노조 광주본부 관계자는 “차량 시위는 노동자가 5월 항쟁에 조직적으로 나온 첫 투쟁이다”며 “계엄군에게 계속 밀리던 시민들에게 힘을 심는 촉발제가 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박미경 5·18민주항쟁기념행사위원장은 “지난 1980년 5월 여러분과 선배들의 정의로운 판단과 행동이 광주시민에게 저항하는 계기를 만들어줬다”며 “앞으로도 정의로운 판단이 필요한 시기엔 앞에서 44년 전 그날의 모습을 보여줄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민주기사의 날 행사는 공법단체 내용 등으로 행사가 불발될 위기에 놓였으나 민주택시연합의 항의를 통해 처음으로 시민사회인 5·18민주항쟁기념행사위원회가 행사 주최를 맡아 개최됐다.

글·사진·정상이 기자 sangja.jeong@jnilbo.com

44년 만에 5·18 계엄군 ‘고발’ 단죄 할까

5·18조사위 정호용 등 고발 추진 “7명 시민 학살 추가로 밝혀져”

44년 만에 5·18민주화운동 계엄군에 대한 형사고발이 추진되면서 5·18 학살 가해자의 단죄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위)는 20일 오후 2시 전원위원회를 열고 민간인 학살 계엄군 고발과 종합 보고서 초안 심의에 대해 논의했다.

조사위는 5·18 핵심 관계자인 정호용 전 특전사령관·최세창 전 제3공수여단장을 내란목적살인 혐의로 검찰 고발을 추진 중이다.

정 전 사령관은 전두환 등과 함께 1997년 대법원에 내란목적살인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바 있지만, 당시 적용된 광주재진입작전 18명 살인과 별개로 같은 날 시민 7명을 학살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 추가 고발이 가능하다고 조사위는 판단했다. 또 이때 혐의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진압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한 최 전 여단

장도 함께 고발하기로 했다.

조사위는 송암동·주남마을 민간인 학살 사건을 주도한 최용 전 제11공수여단장 등 9명에 대한 고발도 준비 중이다.

조사위는 최 전 여단장을 주남마을 총격 사건에서 생존 시민 2명을 즉결 처형한 혐의로 계엄군 5명과 함께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주남마을 사건은 5월23일 11공수여단 62대대가 지나가던 미니버스에 총격을 가해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17명이 사망한 사건이다.

최 전 여단장은 5월24일 송암동 오인사건 사건에서 민간인 3명을 즉결 사살한 혐의로도 다른 계엄군 4명과 같이 고발된다.

이날 전원위에서는 왜곡 논란을 낳았던 개별보고서 내용을 수정·보완한 종합보고서 초안 심의도 안건으로 상정됐다. 보고서 초안에는 시민사회의 비판을 받았던 ‘권용은 일병 장갑차 사망 사건’, ‘나주경찰서 무기 피탈 사건’ 등의 개별보고서 내용이 바로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위 관계자는 “계엄군 고발과 관련해 전원위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표결을 통해 의결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강주비 기자



박현숙 열사의 유족 박대우씨와 송원여상 관계자 등이 20일 광주 송원여상에서 5·18 주남마을 버스총격 희생자 박현숙 열사의 추모비 제막식을 갖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송원여상에 박현숙 열사 추모비… “선배 오월정신 계승”

주남마을 희생자 추모비 모교 교정에 새롭게 세워 “후배들의 추모·기억 계기”

5·18민주화운동 당시 주남마을 버스총격 사건 희생자 박현숙 열사의 추모비가 박 열사의 모교인 송원여상에 건립됐다.

20일 광주 남구 송원여자상업고등학교에서 박현숙 열사 추모비 제막식이 열렸다. 행사에는 박 열사의 유족 박현숙·박대우씨와 송원여상 학생 및 교직원, 오월단체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여했다.

지난 2016년에도 송원여상 교정 입구 화단 한편에 박 열사의 뜻을 기리기 위한 추모비가 설치됐다. 다만 워낙 크기가 작

은 탓에 아쉬움의 목소리가 컸다.

이에 유족과 박현숙열사추모회는 박 열사의 희생정신을 더욱 널리 알리고자 5·18 44주년을 맞아 올해 새롭게 추모비를 세웠다. 같은 장소에 설립된 추모비는 높이 1500cm, 가로 1500cm로 기존 추모비보다 훨씬 크고 눈에 띄는 형상이다.

박 열사의 후배인 송원여상 학생들은 이번 추모비 건립을 계기로 더 많은 이들이 박 열사를 기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송원여상 학생회장인 주선영양은 “아직도 박 열사에 대해 모르는 친구들이 많다. 새 추모비가 크게 세워진 만큼 학생들도 박 열사에 대해 더 잘 알고 공부하는 계기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유족들 역시 감회가 남달랐다.

박 열사의 언니 박현숙씨는 “기존에 있던 추모비는 너무 작고 간소해 볼 때마다 마음이 아렸다. 가족끼리 상의 후 학교 측과 긴밀한 협의 끝에 새로운 추모비를 세울 수 있게 됐다. 지난해 전남일보에서 추모비 관련 기사(2023년 5월15일자 4면)를 보도했는데, 그것 또한 이번 추모비 건립에 크게 작용했다”며 “44년 만에 처음으로 동생에게 몇몇할 수 있는 날이다. 추모비를 통해 현숙이의 후배들이 오월정신을 잘 계승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5·18 당시 송원여상에 3학년에 재학 중이었던 박 열사는 희생자 장례를 돕는 활동을 하다 관을 구하기 위해 주남마을 마이크로버스에 오른 뒤 계엄군 총격에 숨졌다. 글·사진·강주비 기자

술에 취해 지인 흥기로 찌른 30대 여성 체포

순천에서 술에 취해 지인에게 흥기를 휘두른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순천경찰은 특수상해 혐의로 A씨(33)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3시34분께 순천시 한 주택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B(45)씨를 흥기로 찌러 다치게 한 혐의

를 받고 있다.

A씨는 지인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폭행당하자 주방에 있는 흥기를 꺼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흥기에 찌린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송민섭 기자